



소진공, 소상공인美 진출 가시화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들의 미국 진출 가시화를 위해 추가 행보에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20일 대전 본부에서 미국 OCIE SBDC(중소기업개발센터),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오렌지카운티한인상공회의소와 한-미 양국 수출입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진공



동반위, 업종 간 갈등 해소·경쟁력 강화 나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도 상생컨소시엄 사업과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통해 업종 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동반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24년도 상생협력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반위



우리銀, 외국인직접투자 전담 특화채널 추가 개설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외국인직접투자 전담 특화채널인 '글로벌투자WON센터'를 광화문 서울파이낸스빌딩에 추가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투자WON센터'는 지난 2023년 7월 조병규 은행장 취임 직후 신설한 특화채널로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등 기업 해외자본거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우리은행



한신대 박물관, 소장 유물 보고서·국가귀속 진행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박물관은 '2024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재청과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한신대를 비롯해 전국 대학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국가 귀속 절차 등이 진행된다. 이후 교육·전시·도록 발간으로 시민들에게 유물 공개가 될 예정이다. /한신대



광동제약, 제주 취약계층에 1억 상당 음료 기부

광동제약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음료 나눔' 전달식을 갖고 제주 취약계층을 위해 1억원 상당의 음료를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광동제약

현대차·기아, 성균관대와 자율주행 센서 개발 '박차'

**4D 이미징 레이더 공동연구실 설립
3D比 해상도·고도측정 기술 ↑
레벨 3 이상 자율주행 활용 가능**

현대차·기아가 성균관대와 차세대 자율주행 센서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기아와 성균관대는 자율주행차에 쓰일 초고해상도 4D 이미징 레이더 센서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실을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 설립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연구실은 개발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왼쪽)과 현대차·기아 선행기술원장 이종수 부사장이 21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공동연구실 현판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필수적인 초고해상도 레이더 구현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현재 양산 차량에 탑재된 3D 레이더 센서는 카메라나 레이더 센서에 비해 해상도가 떨어지고, 사물의 고도를 측정하지 못해 소형 물체를 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4D 이미징 레이더'라고도 불리는 초고해상도 레이더를 개발 중이다. 기존 3D 레이더에 비해 해상도가 최대 수백 배 높아지고, 고도 측정 기술이 추가돼 훨씬 더 정밀한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레이더의 해상도가 높아지면 원거리에서도 물체를 더 잘 구분해낼

수 있고, 차량 주변의 주요 객체를 인식하는 능력이 증대돼 레벨 3 이상 자율주행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미래항공모빌리티, 로봇틱스 등에서도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고도화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공동연구실은 기존 센서와 동일한 크기에서 더 많은 안테나를 집적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레이더용 반도체 칩(MMIC)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기부, 중소기업과 상생 도모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온디바이스 AI 챌린지' 출범식에서 관계자들과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기부

LG전자 등과 AI 스타트업 육성

온디바이스 AI 초격차 챌린지 MS, 인텔코리아도 동참

중소벤처기업부가 LG전자 등과 손잡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코리아도 동참한다. 차세대 딥러닝 기술로 꼽히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는 기기에 탑재한 AI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신을 통해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적으로 AI 학습과 연산 등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LG전자, MS, 인텔코리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디바이스 AI 스타트업 간 협업 추진을 위해 '온디바이스 AI 초격차 챌린지'를 공고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챌린지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추진해 오던 '팍시스

초격차 챌린지'에 이어, AI 분야에서 유망 AI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챌린지는 이날 공고를 통해 생성형·온디바이스 AI 개발 역량을 보유한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공모 분야는 ▲온디바이스 AI PC 분야 ▲온디바이스 AI 응용 분야 ▲자유 제안 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챌린지 희망 스타트업은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스타트업은 LG전자(디바이스), 인텔(칩셋), 마이크로소프트(SW)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부터 기술검증(PoC) 등 기술지원과 중기부로부터 협업 비용을 지원받는다.

/김승호 기자 bada@

'우문현답' 현장중심 정책 추진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소통포럼' 발족
위원 16명, 1년간 자문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현장소통포럼'을 발족했다.

중기부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소통포럼' 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위원은 앞으로 1년간 중

소기업 정책에 대해 자문한다.

오영주 장관은 "현장의견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미래를 대비한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현장소통포럼이 중소기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마련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CJ CGV, 中 박스오피스 화제작 상영

'부산상하이영화전' 개최

CJ CGV는 중국 박스오피스 화제작을 상영하는 '2024 부산상하이영화전'을 오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상하이 우호 도시인 부산의 CGV 센텀시티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4 부산상하이영화전'은 상하이영화국 및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주최, 상하이영화배급방영업계협회와 CJ CGV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코미디부터 멜로드라마까지 2019년부터 중국에서 흥행했던 5편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렌탈, 고객중심 경영 실천의지 공표

올해 CCM 인증 추진 선포식 열어

롯데렌탈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선포식을 열고 고객 중심 경영에 대한 실천의지를 공표했다.

롯데렌탈은 지난 20일 롯데렌터카 서울역지점에서 올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선포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T·SKB, 'iF 디자인 어워드' 나란히 수상

T-B 브랜드 리뉴얼·아트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T-B 브랜드 리뉴얼'과 'T-B 브랜드 아트월'로 각각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KT는 'T-B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3년 연속 본상 수상했다. 'T-B 브랜드 리뉴얼'은 글로벌 AI 컴퍼니로서 새롭고 미래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각 회사의 대표 브랜드인 T(SKT)와 B(SKB)를 재탄생시켰다.

T-B 브랜드는 리뉴얼 과정에서 기존 T-B 브랜드의 비대칭적 구조와 여백을 최소화해 모바일 상에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다.

SKB는 'T-B 브랜드 아트월'로 2년 연속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성원이 브랜드를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 사옥 내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콘셉트로 구성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인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이사 △경영관리본부장 조경숙
- ◆MBC △대전 MBC 대표이사 사장 진종재 △충북 MBC 이태문 △전주 MBC 정희찬 △원주 MBC 전병덕 △포항 MBC 이송용 △경남 MBC 이우환 △여수 MBC 이호인 △제주 MBC 정용식

- △목포 MBC 김순규 △대구 MBC 황의진 △춘천 MBC 최현영 △강원영동 MBC 한정우 △광주 MBC 김낙근 △울산 MBC 유해진 △안동 MBC 채환규 △MBC세앤아이대표이사 사장 도인태 △이사(부사장) 정영하 △이사 황선숙 △MBC아트 대표이사 사장 유현